


시 강만

멀고도 가까운 길

우리 동네 큰길
오른쪽에 (희망산부인과)
왼쪽에 (행복장례식장)이 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건너가는데
평생이 걸렸다

약력
▲'시와 시학'으로 등단
▲광주문인협회 회장 역임
▲수상 : 광주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용인문학상 등 다수
▲시집 : '사랑의 무게', '푸른 단검', '쌈빡' 등 다수




시 문인호

봄의 판타지

어린 새들이
꽃보다 먼저
봄이 온다고
기지게 켜면
양지쪽 예저기서
꽃눈 뜨는 여린 숨결
봄비 그친 산야를 들썩이고

산바람 강바람에
바람난 아낙들
바구니에 봄 향기
가득 가득 담아 들고
해살해살 웃는 양이
영락없는
봄 햇살이로고

약력
▲국제펜 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회원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파견 작가
▲현송재 서재필기념관장
▲전남지방행정동우회 편집위원장, 동산문학 편집위원
▲저서 : '말의 섬에서 따온 사과' 외 7권
▲수상 : 광주예총상 외



시 김현태

노송

초록빛 물들어
열정 피운 꽃송이처럼
쫄개진 바위틈으로 뿌리 내려

아슬아슬한 절벽 끝자락
모진 비바람 맞선 곳곳함으로
질곡 넘나들며 살아간다


허공 속 창문 매달고
양상한 우듬지에 세월의 흔적 말아
낮달에 우러낸 기슭 아래 주고

거센 바람 굽고 가는
하늘 끝 속을 음
산골짜기 휘감아 올려 퍼진다

솔잎 사이로 비스듬히 기운 햇살
솔방울 뒷덜미 틀어잡아 흐르다
토닥거리고

가파른 여정에
아름드리 솔향기 토해내며
하얀 운무
허리띠로 두르고 있다.

약력
▲등단 : 새한일보, 샘문학, 강건문 회화스, 시사불교, 한국그린문학 등 신춘문예 5편 당선
▲총장문학회 부회장, 광주문협-광주시협 이사
▲신정문학 최우수상 외 전국 문학상 공모전 207편 수상
▲시집 : '사색의 창 너머로', 수필집 : '추억이 머문 자리', 시조집 : '바람에 실려 온 노래' 외
▲행정학박사



수필 김정원

지구 감정과 생태 슬픔

지구에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감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

지구의 감정은 격렬한 분노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그것은 폭우와 태풍, 산불과 가뭄의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감정은 오히려 조용한 방식으로 스며듭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종들, 이름도 기억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식물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풍경들. 우리는 그것을 '적응'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적응이라는 말은 때로 너무 잔인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애도를 생각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생태 슬픔은 그 애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는, 아직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감정을 밀어냅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달라질까?" 이 질문은 어느새 체념의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변화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내가 잃어가고 있는 것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가."
바라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라

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더 빨리 잊게 됩니다. 그리고 잊는 순간, 사라짐은 더 쉬워집니다. 지구의 감정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의 속도로 타들어 가는 숲의 냄새로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작은 균열들 속에서 우리는 그 기록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일부라서 생태 슬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행동을 강요하는 감정이 아니라, 먼저 느끼고, 멈추고, 다시 묻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나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구는 여전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슬픔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답이 아니라 이 슬픔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용기 위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력
▲'동산문학' 수필 신인상 수상
▲대한 시문학 신인상 수상
▲광주문인협회 이사
▲동산문학 작가회 사무국장
▲한세봉문학, 한실문학 회원
▲한국미술협회 최우수작품상 수상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왕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